



약관(弱冠)의 거보(巨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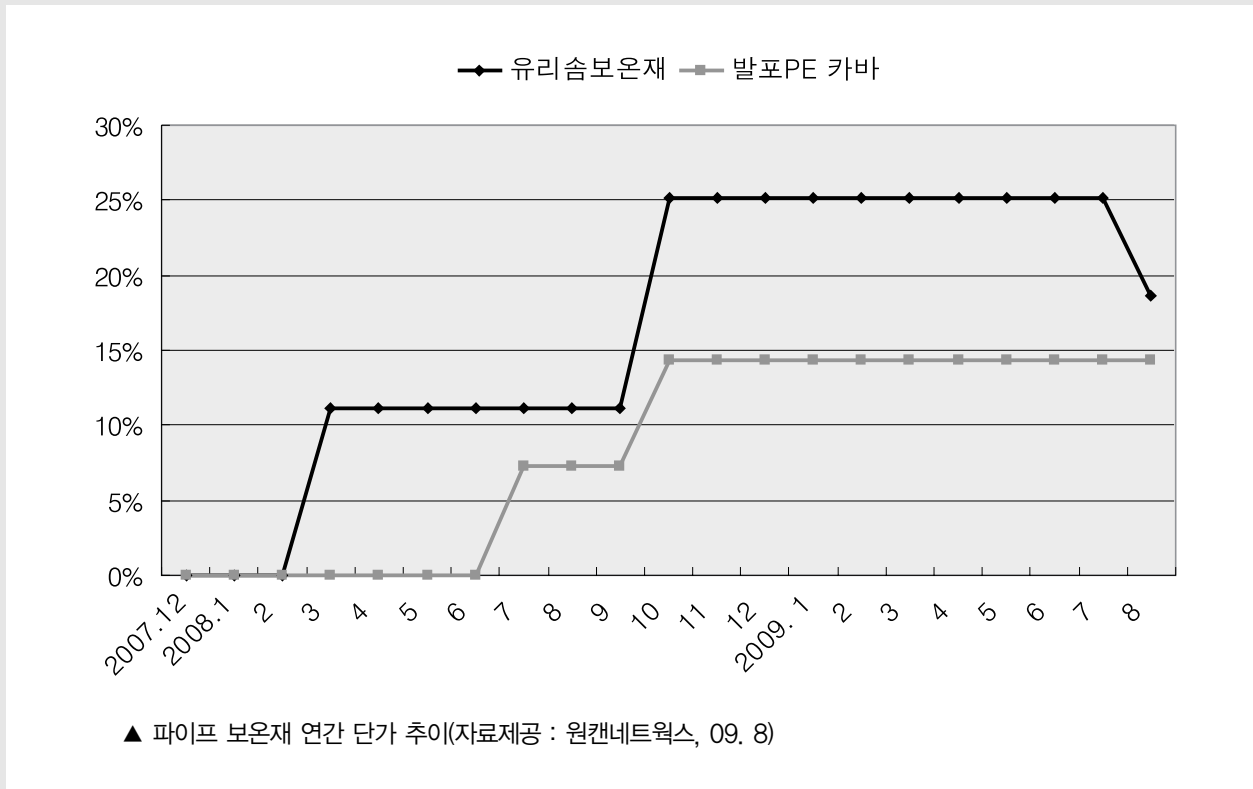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한설비건설협회의 회장님과 회원사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가슴 깊이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창립 이후 2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함축하라면 일취월장(日就月將) 또는 괄목상대(刮目相對)라고 할 것이요, 세마디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첨단화’, ‘대형화’, ‘전문화’ 라고 하겠다. 물론 기술력과 자재 산업 발전이 그 곁에서 일조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9월 자재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자재 동향

자재 및 원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원자재의 상승폭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특정 원자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재, 비철금속, 알루미늄 등 원자재 전반이 오르고 있음 - 봉, 형강류, STS관, 동관의 인상이 가파르게 형성될 전망이고 STS관은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동관도 지속적인 오름세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 강관은 9월에 인상 요인 반영할 계획
STS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초부터 가격 인상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여 각 대리점마다 물량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제조사의 생산 저조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 - 설비사들 역시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물량은 9월 중순이 넘어야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견 - 9월까지 STS관의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
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동관도 LME 가격 인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8월초에는 물량 수급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9월 이후 가격 상승에 따른 가수요로 인하여 물량 확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에 단기적으로 단가 하락이 있었으나, 제조사별로 9월 중 단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인상폭이 높지는 않을 것이나 미리 물량 확보 계획을 세워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구매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 단가의 변동이 잦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시장 단가 정보를 입수하여 자재 협력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이번 호에서는 파이프 보온재의 연간 단가 추이를 살펴 보았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 가정은, 유리솜 보온재는 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가격 역시 약세를 보일 것이고, 반면에 수요가 늘고 있는 신 소재는 가격도 강세를 보이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필자의 예측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유리솜 보온재 가격은 계속 강보합세를 이어갔고, 발포PE카바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유리솜 보온재는 파이프 보온재 측면에서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도 건축 단열재 전체로 놓고 보면 아직도 수요가 적지 않기 때문에 파이프 보온재로서의 수요 감소는 전체 가격 등락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이 연간 1회 정도 밖에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아 시기별 구매전략은 큰 의미가 없고, 공동 구매와

장기 연간 단가 계약 등을 적절히 믹스하여 가격을 할인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칸네트웍스 (구 설비넷) 사업총괄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t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에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자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